에이핑크 '벌써 데뷔 1000일'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14일

소치행 티켓 최다 67장 확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었던 '4년'

긴급진단 - 이석채 체제 공동이 된 KT 변해야 산다

KT가 위기다. 단순히 유선사업 분야의 매출이 줄고 있다, 이래 먹거리가 없다, 시장이 포화 상태다 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06년 미국의 통신 공룡으로 불리던 AT&T가 몰락한 것처럼 KT라는 이름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에 이어, 결정적으로 이석채 체제 4년 동안 이런 위기감이 심화됐다. 이제 황창규 회장 체제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KT의 현재를 진단하고,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김태균기자 tiesed@metroseoul.co.kr

매출·순이익 급감 속에도 경영권 지키려 '고배당 잔치'
기업 근간 대부분 매각…올해 적자전환 장기화 우려

[글 싣는 순서]
① 위기에 KT 어디로 가나
② '내부 혁신' 이 우선이다
③ 이런 관행 괜찮나
④ ICT서 바라보는 황창규호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KT 내부 직원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을 이끌어 온 KT의 충격적인 현실이다. 공기업인 한국통신으로 시작해 민영화 과정을 거쳐 거듭난 KT는 항상 'KT=한국의 IT'라는 등식이 성립된 기업이다. 그만큼 국내 IT 분야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는 이제 내부 직원의 고백처럼 올해부터 적자를 고민해야 하는 기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의 경우 KT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줄어든 5조7346억원, 당기순이익은 63.1% 감소한 136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무선사업 분야 영업이익은 1조7138억원으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2.3% 줄었다.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11만4000여 명이 빠져나갔고 무선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감소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히 이석채 전 회장의 4년 체제가 만들어놓은 그림자라는 것이 중론이다.

KT 관계자는 "KT는 수장이 누가 오든 수익을 걱정해야 하는 회사는 아니었다"며 "길지 않은 이석채 전 회장의 재임 기간 회사가 이 정도로 망가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재임 기간에 성과를 자신할 수 없는 르완다 등 아프리카 글로벌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른자위 부동산과 구리선 케이블, 위성 등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매각했다. 한마디로 기업의 근간이 되는 뼈대를 하나씩 조각내 매각한 격이다.

외상매출도 문제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미래에 매달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단말기 할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고 이를 글로벌 사업에 투자했다. 소위 '깡'을 통해 현금을 조달한 것이다.

심지어 글로벌 사업을 핑계로 지난 2011년 자회사로 보유 중이던 러시아 연해주 통신사업자 NTC를 러시아 방송업체에 매각하기도 했다.

이런 악화된 경영 환경에서도 주주들에 대한 고배당은 계속됐다. 경영권 안정을 위한 것이다. KT가 해마다 지불하는 배당금은 5000억원 수준에 이르렀다. 배당액이 2000원이니 주식 액면가 5000원 대비 무려 40%에 달하는 수치다. 이 전 회장 퇴임 이후 올해 진행될 배당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IT업계의 맏형 역할도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KT가 해마다 장비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은 1조~2조원가량 된다.

이 역시 이 전 회장 재임 당시 외국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등 대부분의 금액이 해외 장비업체를 살찌우는 데 쓰였다. 올해는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이 됐다.

KT 관계자는 "KT는 지금 투자 재원 확보 자체가 힘든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신용도가 악화되면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입경영을 해야 한다"며 "차입경영 시 이자율이 높아져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선사업 및 무선사업 혁신과 함께 글로벌 사업을 대폭 구조조정해야 하고, 매각한 부동산을 다시 사들여 임대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60개 도시 '하의실종 지하철'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지하철 안에 바지를 입지 않은 승객들이 나란히 앉아있다. 이날 런던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키예프와 스페인 마드리드, 벨기에 브뤼셀과 미국의 뉴욕, 시카고,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 60여 개 도시에서 바지 벗고 지하철 타기' 행사가 열렸다. 뉴욕의 유머 클럽시설 단체인 '임프루브 에브리웨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바쁜 현대 시민들에게 유쾌한 미소를 선사하자는 취지로 2002년 7명의 참가자로 시작된 행사는 현재 26개국으로 확산, 글로벌 이벤트가 됐다. 작은 사진은 이날 하의실종 행사에 참가한 캐나다 토론토 시민들이 메트로신문을 보고 있는 모습. /AP 신화 연합뉴스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화장품 3월부터 '반값'에 구입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 추진

앞으로 독점계약 수입법인 외 월마트나 아마존 등을 이용한 대량 구매를 통해 도매가로 들여오는 병행수입품이 눈에 띄게 늘어나 유명 외국 브랜드 옷이나 화장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부문의 독과점이 수입품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보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병행수입은 해외 상품의 국내 판매권을 가진 독점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물건을 들여와 파는 방식으로 병행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 경쟁이 유발돼 소비자가격이 많게는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입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통해 병행수입 등 대안적인 수입 경로를 확대하기로 하고 병행수입품의 품질을 인정하는 통관 인증과 관련된 진입 장벽을 완화할 예정이다.

통관 인증에 요건으로 규정된 각종 시설 인력 기준 및 검사를 간소화하는 한편, 병행수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병행수입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국내에 들어오는 상표·물품 규모 등을 파악하고 3월께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3월 중 대책을 내놓는 즉시 시행된다. /박상훈기자 sh@metroseoul.co.kr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빅마켓의 병행수입 의류 코너 /연합뉴스

안티 카페 유감

기자 수첩
탁진현
<연예스포츠부 기자>

최근 아시아의 대세 그룹으로 사랑받고 있는 엑소의 극성 안티 카페가 발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망사'(가요계 망치는 소리)로 알려진 이 안티 카페는 비판을 넘어서 엑소 가족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지나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을 하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엑소 군면제 서명 운동'과 '엑소 몬신 자체 시진' 역시 일부 극성 안티팬들의 지능적인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엑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피니트·B1A4의 안티 카페도 가서 봤는데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다. 이들 안티 카페는 정당한 비판을 통한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게시판과 채팅에서는 스타를 향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안티팬과 팬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대화들이 빈번하게 오가고 있다.

안티카페의 안티는 반대 의견을 뜻하는 안티테제(antithesis)의 준말이다. 비방이 아닌 어떤 특정한 것에 반대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이러한 목적의 안티는 건전한 비판을 통해 대상을 발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욕설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비방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한류가 전세계에 확산된 요즘엔 스타와 팬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다국적 팬들은 스타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언어와 시차의 구분 없이 공유한다. 무조건적인 비방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흩어진 양들 모아 갈등과 분열 치유" 13일 오전 명동성당 서울대교구청 주교관 앞마당에서 열린 임명축하식에서 한국의 세 번째 추기경에 임명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오른쪽) 대주교가 꽃다발을 높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정치혁신 주도"

"민주, 제2 창당 각오로 박차 가할 것…민생·경제 적극 챙기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선 특검 도입과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13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놀랐다"며 "고단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최종 목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어야 한다. 여기에 맞게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상보육,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을 실현하고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주택 문제를 풀고, 공공의료시설을 늘려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지적된 부정은 그것대로 척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계속하겠다"며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반성했다. 이어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고 "대북 정책이 더 이상 국론 분열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많이 당황한 로드먼 북한 방문을 마치고 13일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전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52)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로드먼은 이번 방문에 대해 "난 대통령도 아니고 대사도 아니다. 다만 전 세계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육군 모범병사 삼성전자 특채

SW 개발인력으로 추천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고졸 학력의 육군 모범병사는 앞으로 삼성전자 특별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

13일 육군은 올해부터 야전부대에서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병사를 삼성전자 소프트웨어(SW)개발 인력으로 추천하는 '모범병사 삼성 SW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육군에서 고졸 학력의 인재를 정원의 1.5배수로 추천하면 전역 후 삼성전자에서 교육 대상을 최종 선발, 6개월간의 SW개발자 양성 교육을 통해 청년 IT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교육 이수 인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사 채용전형 때 우대를 받는다.

양성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탈피오트 부대 의 군 복무 프로그램에서 착안한 것으로, 군 복무 경험의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고 고졸 출신의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여 "4·3 국가추념일 추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3일 제주도당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4·3 국가추념일 문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주에 지정키로 확정했다"며 "제주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 역시 "4·3이 국가추념일이 되면 첫 추념 행사 때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빚더미' 지방공기업 5단계 경영평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축소되고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른 경영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전 지방 공기업에 보내고,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3월부터 시행되는 330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된다.

각 지방 공기업에는 5단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 삭감이나 정원 감축, 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지방 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16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율 목표는 지난해 400%에서 올해 300%로 축소되고, 2017년에는 200%까지 감축된다.

안행부는 또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관리 강화를 위해 순영업자산 회전율과 당좌 비율(당좌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율) 지표를 평가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양·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와 부채에 걸맞은 현금자산을 보유해 유동성 관리를 적절히 하는지가 새로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김민준기자 [illegible]

국정원, 서초구청서도 채동욱 혼외아들 뒷조사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불법 열람에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 음전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송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도 채군의 아버지 이름을 확인하려 하는 등 채 전 총장과 채군의 뒷조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 역시 이 전화기를 통해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현준기자

기초연금 20만원의 '덫'

노인 70%에게 똑같이 주려면 생산가능인구 세금 1년 28만원씩 더 내야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연령층 1명당 30만원씩의 세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 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 데 필요한 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 정도다.

만약 해당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줄 경우에는 1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재원이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에 같은 비율으로 국민 세 부담을 계산하면 2015년 생산 가능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의 세금 부담은 13만원 늘어난 41만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많은 대상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 해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한정된 예산 등 재원 문제와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나머지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육류 유통 '꼼꼼 단속'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서울시 식품안전과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들이 설을 앞두고 육류 제품의 유통기한,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공동구' 안전 취약

서울 시내 각종 전선·통신선·수도관 등을 도로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 설치한 '공동구'가 화재와 침수에 취약하고 안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한 공동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닷새간 서울 시내 6개 공동구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6개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서울시는 내부 점검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공동구별로 누수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밸브 키를 비치하기로 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민준기자

개성공단 RFID 곧 가동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공사가 이번 주 마무리돼 이달 말부터 가동된다. 통일부는 13일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공사가 이번 주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1~2주간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 시범출입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이달 말이면 일단위 상시출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RFID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입계정 당일에 한해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김도형기자

수은주는 '최저' 사랑의 온도는 '최고'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01.7도를 가리켰다. 사랑의 온도탑은 올해 정해진 모금 목표액인 3115억원이 모금되면 100도를 가리킨다. 지난해 11월 20일 '희망 2014 나눔캠페인'을 시작한 지 55일 만에 목표액을 넘어 3160억원의 모금액을 기록했다. 1999년 연말연시 캠페인 이후 역대 최고 모금액이다. /연합뉴스

4주를 못 참아서 영창 간 왕기춘

훈련소서 휴대전화 사용 재입소 교육훈련 받아야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사진)이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퇴영 조치됐다.

육군 관계자는 13일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 선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고 7일 부대로 복귀했다"며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 시간 미달로 병무청의 입영통지 절차를 다시 거쳐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기춘과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은 병역 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윤다혜기자

농어촌공사 '현대판 매관매직'

승진시험 문제 유출 뒷돈 17년 전부터 60여명 연루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진시험 문제를 유출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1997년부터 문제 유출이 이뤄졌으며 비리에 가담한 인원이 모두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56·구속)씨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소속 윤모(53·구속)씨에게 돈을 받고 농어촌공사 승진(3급)과 정규직 내부 채용(5급) 시험 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 대가로 오간 돈의 규모는 3억1550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소시효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응시생 25명 중 혐의를 인정하는 22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3명은 구속했다. 2007년 이전 응시생들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조현희기자 hjc

프로포폴 연예인 구속한 검사가 해결사로?

성형수술 부작용 치료 병원에 압력행사 의혹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년 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여성 연예인 이모(32)씨를 수사한 A 검사가 이 연예인의 성형수술 부작용 문제에 관여, 사건 관계인들을 부당 접촉한 의혹에 대해 감찰 중이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소속 A 검사는 2012년 9월 이씨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그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초 A 검사에게 연락해 수술 부작용에 대한 도움을 호소했고, A 검사는 서울로 올라와 원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결국 이씨는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받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 1500만원가량을 변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과정에서 A 검사가 아예적으로 직접 이씨를 도와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해당 원장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프로포폴 투약 병원을 수사할 당시 내사 대상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A 검사에게 사건 무마나 선처 청탁 등을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윤다혜기자 ydh@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혁

터프가이 험프리 보가트 사망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배우로 지목된 터프가이 험프리 보가트가 1957년 1월 14일 식도암으로 사망했다. 비정한 뒷골목 스페이드로 사립 탐정의 전형을 완성했다는 평을 들은 '말타의 매', 무뚝뚝이 선장으로 나와 여배우 캐서린 헵번과 정반대 개성의 연기 조화를 이루어 호평을 받은 '아프리카의 여왕', 잉그리드 버그만과 최고의 연기 앙상블을 만들어 낸 '카사블랑카' 등 터프하면서도 로맨틱한 캐릭터의 그는 고독한 영웅 이자 신비로운 리스트로 각인됐었다. 1952년 '아프리카의 여왕'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한양도성 주변 500m 개발제한 완충지대로

서울시가 한양도성 성곽과 그 양쪽 500m 범위에 개발 제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보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한양도성 마스터플랜'을 담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양도성지역을 역사·문화 중심지로 조성·관리하는 계획을 담은 것으로, 한양도성 18.6㎞ 전 구간이 '보존관리구역'으로 설정돼 보존 가치가 높은 한양도성와 양쪽 100~500m 구간은 성곽의 훼손을 막기 위한 완충구역인 '버퍼존'이 설치돼 개발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문화재로 지정된 구간은 기존보다 더 넓은 완충구역을 설정해 보존을 강화하는 한편 미지정 구간에 대해서도 완충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거나 경관지구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선조기자 m.kim@

수리부엉이 방사 13일 경기도 양주시 남면 요순저수지 일대에서 개최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에서 야생조류보호협회 관계자들이 수리부엉이를 방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사교과서 채택 '외압' 막는다

당정, 6월 말까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대학 구조개혁안 이달 중 발표

교육부가 6월 말까지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한다. 또 이달 내로 대학 구조 개혁 방안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현행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해 기술한다는 '양대 원칙'에 기반해 교육부로 하여금 상반기 중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정밀히 점검하고 새누리당도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사태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과 관련,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현행 (선정)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더라도 결국 채택 현장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은 데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학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상세한 구조 개혁 방안을 완성하고, 구조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빈 대학 건물의 활용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th@metroseoul.co.kr

4대강 공사 담합 대형 건설사 임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500만원을, 이들 건설사 임원 1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건설사가 시장 지배 구조를 형성하면 다른 건설사는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합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경희사이버대 정시지원 증가

경희사이버대학교가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1차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지원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원 내 신입학 지원율이 8.5%, 10대 지원율이 60% 뛰어 2년 연속 상승하게 됐다.

항공대 졸업생 취업률 98%

한국항공대가 졸업생들의 유지 취업률이 98.1%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한국항공대는 올해 취업률 73.1%로 수도권 일반대학 취업률 1위, 유지 취업률 98.1%로 전국 대학 유지 취업률 3위를 기록했다.

수방사 '1·21사태 상기행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1·21사태 상기 대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당시 상황을 되짚어볼 수 있는 '리멤버 1·21 사진전시회'와 국민들이 직접 무장공비들의 침투로를 걸어보는 '나라사랑 걷기대회'로 나뉘어 실시된다. 두 행사 모두 무료로 관람 및 참가할 수 있다.

'공시 열풍' 혹독한 훈련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전문학원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도시텃밭 신규조성사업 추진

서울시 종로구는 내달 10일까지 '도시텃밭 신규조성지 집중 발굴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2011년 이후 도시텃밭 신규조성이 가능한 후미진 공터나 버려진 땅, 국공유지 등을 발굴해 쓰레기 1200여t을 치우고 46곳에 도시텃밭을 조성했다.

기업시민청 토크콘서트 개최

서울시 금천구는 16일부터 2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가산동 세경하이텔 '기업인 만남의 공간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구로공단 명사에게 길을 묻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라는 주제로 매주 오피니언 리더를 강사로 초청한다.

청사벽면에 태양광시설 설치

서울시 도봉구가 구청사의 벽면을 신재생 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구는 13일 청사 벽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18kW급을 설치하고 14일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치된 130㎡의 면적에서 연간 1만892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metro France

Un architecte recrée le casino Jetée-Promenade

2차대전 때 파괴된 건물 3D로 복원

프랑스 니스의 한 건축가가 사라진 건축물을 3D로 복원한 후 재현작업에 관심을 끌고 있다. 니스의 상징이었던 주데프로므나드는 바다 위에 지어진 카지노로 1944년 2차 세계 대전 당시 파괴된 건물이다. 이 건물에 대해 깊은 건축가 마리오 비소가 3D 작업을 통한 건물 복원에 나섰다. 그는 "1년 전 카지노 건물이 담긴 옛날 엽서들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됐다. 사라진 건물을 3D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metro Brazil

Caranguejos voltam a invadir praia de Bertioga

해변 몰려온 게 '바다 돌려보내기 대작전'

브라질의 이타과레 해변에 게들이 떼거 몰려들어 화제다. 이들이 해변으로 몰려든 이유는 최근 살파울루를 강타한 폭우로 강력 바위들의 염분이 낮아졌기 때문. 그러나 이는 기쁘할 만한 일이 아니다. 투악족으로 알려진 이 게들은 바다에서만 살 수 있다. 고귀한 생김을 살리기 위해 상파울루주의 환경단체는 직접 할 벗고 다시 해변의 게들을 잡아 근처의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이타과레 해변에는 지난해에도 약 100만 마리의 게들이 몰려들었다.

metro Chile

휴가 가는 아내들 "남편 바람 피울라" 거액에 탐정 고용

"남편 바람 피우는 건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남반구인 칠레에서 여름을 맞아 상당수 가족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사설 탐정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업무 때문에 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집에 홀로 남는 여름 홀아비 덕분이다. 아내들은 집을 떠나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탐정 사무소 '정보원의 집'을 운영하는 보리스 오브레케는 "남편을 감시하기 위해 의뢰를 신청하는 여성들이 많다.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의뢰 건수가 20% 늘었다"면서 "이런 추세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달에 7건의 작업을 수행한다는 그는 "요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 "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의뢰가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비용은 얼마일까.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의뢰 비용은 1주일에 1200달러(약 127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도구를 이용해 직접 '증거'를 잡으려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많은 아내들이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남편 몰래 집 안 여기저기 숨겨놓기 위해서죠. 펜처럼 생긴 카메라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양심' 때문에 이 같은 업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는 호르헤 새벨은 "여름에 적어도 30% 이상 의뢰 건수가 늘어난다"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몰래 남편의 뒤를 캐는 일은 맡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라오 바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두 살배기 학대 '대륙의 분노'

친아버지가 담뱃불로 머리·얼굴 지지고 전깃줄로 온몸 폭행… "때린 뒤에는 후회했다" 변명

머리에 넓게 퍼진 화상, 얼굴과 몸에 가득한 상처들…

최근 중국에서 두 살배기 아이에게 이같이 참혹한 상처를 낸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로 밝혀져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2일 광둥성 순더(順德)시에 사는 샤오베오(사진)의 아버지 쉬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아이의 머리는 화상으로 벗겨져 제대로 눈 뜨고 보기 힘든 상태였다. 쉬씨는 "밤에 아이에게 뜸질을 해주자 두피가 벗겨졌고, 이틀이 지난 후 상처가 심해져 병원에 데려왔다"고 말했다.

의사는 샤오바오의 머리 화상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담배꽁초로 그을린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같이 병원에 온 샤오바오의 형(4)과 누나 룽룽(7)의 몸 곳곳에도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룽룽은 "모두 아버지가 전깃줄로 때려서 생긴 상처"라고 말했다.

8일 기자가 병원에 있는 샤오바오와 룽룽을 찾았다. 룽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몇 달 전 부모님이 크게 싸운 뒤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우리를 때렸다.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며 욕하고 때리고 어떤 때는 밥을 하루 종일 굶겼다. 내가 두 동생에게 밥을 해줬다"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하지만 쉬씨는 이는 모두 오해라며 "내가 지금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때린 후에 많이 안 좋아서 눈물을 흘리곤 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란다. 열심히 돈을 벌어 대학에 보내 나 같은 일용직 노동자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위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한편 지난달 쓰촨성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의 전모도 최근 밝혀졌다.

지난달 24일 서훙(射洪)현에 사는 양위란란은 술에 취해 부안을 구타했다. 이를 본 딸 샤오예(1)가 엄마를 감싸며 그만 때리라고 애원하자 양위란린은 딸을 흉기로 8번이나 찔렀다. 병원으로 보내진 샤오예는 6시간 동안 긴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부녀 관계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경상으로 나오면 양위란린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지는 샤오예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샤오예는 "아버지가 두렵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며 형사처벌을 고민하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코스닥
1946.92 (+10.38)	512.02 (+2.73)
금리	환율
2.89 (-0.02)	1058.00 (-5.00)

기아차 쏘렌토 후속 모델 '롱 버전·하이브리드'

기아차가 하반기에 출시할 쏘렌토 후속 모델에 롱 버전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

최근 월드카펀즈닷컴은 기아 쏘렌토 후속 모델이 스칸디나비아의 혹한에서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보도했다.

13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쏘렌토 후속 모델은 두 가지 타입으로 개발 중이다. 하나는 기존 쏘렌토와 비슷한 크기이고, 또 하나는 휠베이스를 늘린 롱 휠베이스 타입이다. 이는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가 숏 보디와 롱 보디로 나눠서 개발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신형 싼타페의 숏 보디는 미국에서 싼타페 스포츠로, 롱 보디는 싼타페로 출시됐고, 국내에서는 롱 보디가 '맥스크루즈'라는 별개의 차종으로 판정됐다.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실내 공간을 키울 수 있고 적재 공간을 늘릴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좋아진다.

/양성운기자 ysw@

뉴스 & 뉴스

"설 명절엔 배 선물하세요"

13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배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외화예금 잔액 감소

●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이 7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484억4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1억7000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김민지기자

정치 테마주 평균 48% 하락

● 정치 테마주의 주가가 지난 대선 선후로 최고가 대비 평균 4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치 테마주 147개 종목의 수익률을 대선 후보자가 수면 위로 떠오른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살펴본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 이 중 49개(33.3%)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고 66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47명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향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은행 자영업 대출 30% 돌파

● 은행의 기업 대출 중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기업에 대한 원화 대출 잔액(잠정치)은 623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30.5%인 190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은 지난 2006년(31.3%) 이후 7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715
2006년 1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58

큰 건 안 긁는 불황형 소비시대

집중진단 - 위기의 카드사

체크카드 인기에 시장 잠식… 음식점·수퍼 등 생계형 결제 대세

실적 하락과 연이은 고객정보 유출로 사면초가에 빠진 카드업계. 여기에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한도 부여, 고액 카드론 때문에 제2의 카드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위기의 카드업계를 진단하고 대책안을 모색해 본다.

/이현진기자 jwelk@metroseoul.co.kr

소비심리 위축과 카드 사용자들 감소.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의 당기순이익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2013년 1~9월)까지는 기준으로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3628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7148억원 대비 3520억원(2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발급건수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422만 매로 전분기 대비 1112만 매나 줄었다.

게다가 예금에서 바로 인출돼 빚을 질 염려가 없는 체크카드가 인기를 끌어 신용카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11월 통계를 보면 신용카드 승인 금액은 38조12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00억원 증가, 증가율 1.2%에 그치고 있다. 반면 체크카드의 경우 8조49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4400억원 증가, 20.5%나 급증했다.

카드 소비 행태가 불황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점도 악재다. 인터넷상거래와 백화점의 신용카드 승인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에선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이 늘었음에도 여전히 불황형 소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가맹점 수수료에 이어 대출금리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여 카드사의 수익원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실적이 상승세로 전환되려면 승인 건수 증가가 결제 단가 하락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업황 악화 추세는 올해 조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적은 상반기까지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현오석(왼쪽 여섯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왼쪽 다섯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이찬수(왼쪽 일곱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손진영기자 son@

외국계 기업 과반수 "한국 투자환경 열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 과반수는 국내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경제변수 변동성 등이 이유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는 답변보다 많았다.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 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답변이 '증가했다'(19.8%)는 응답을 웃돌았다.

국내 투자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원인으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 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을 지적했다. /김태준기자 ksjeb@

'실적공포' 코스피 대안은 대형 우선주

최근 배당락 탓 일시적 하락

코스피가 상장사의 실적 부진 우려로 주춤한 가운데 우선주가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3일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 거래일보다 5000원 내린 9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 우선주(0.83%)도 이틀째 하락했고 삼성화재 우선주(1.80%)도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선주의 약세는 1월 배당락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20년간 주가 동향으로 봤을 때 3월부터는 소폭 상승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적 우려에 발목 잡힌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기업의 현금 보유에 따른 배당과 자사주 매입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적정 거래대금이 유지되는 대형 우선주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덩치가 크지 않은 중소형 우선주의 경우 대주주들이 거래소의 우선주 퇴출제도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 급등을 보이던 쌍용양회 우선주는 연달아 상장폐지됐거나 감자에 돌입했으며 동부하이텍과 한솔아트원제지, 벽산건설 등의 우선주들도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모두 투자관리 대상이다.

반면 우량 우선주의 경우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속속 편입되면서 ETF 연기 효과가 기대된다.

/김현정기자 hjkim1@

'포스트 김중수' 수군수군

한은 총재 3월 임기 만료에 차기 하마평 무성
수출입은행·하나금융 수장 등 연초 인사 봇물

올해 초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의 임기 만료는 각각 3월과 2월이다. 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외환은행 수장들도 3월 중 임기가 끝난다.

특히 올해 금융권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한은 차기 총재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총재직을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다. 학자 출신으로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활동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기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공부모임 멤버인 김인준 서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역시 차기 총재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왔으나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차기 총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잠재 성장률을 4%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라며 "차기 한국은행 총재도 통화 확장을 선호하는 비둘기파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차기 총재 취임을 앞둔 1분기 말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환 수은 행장의 임기도 다음달 6일까지다. 수은 차기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면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전직 기획재정부 차관보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설 이후 차기 행장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CEO들도 올 3월경 대부분 임기가 끝난다. 최흥식 하나금융 사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모두 임기가 3월까지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 임원의 기본 임기는 2년이고, 1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연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다시는 고객 정보 유출 안되게" 13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보호관리책임자 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고객정보 유출방지 유의사항을 유심히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호출된 금융사 정보책임자들

고객정보 유출 재발 위한 회의 … 보안지침 전달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잇따르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의 고객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외주업체 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주재하에 각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었다.

최 수석부원장은 각 금융사와 금융협회 담당자에게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등 내부 이용자에 의한 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 강화 ▲대출 모집인 정보시스템 개발 인력 등 최근 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외주 용역 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외부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기술 부문 보안대책 강화 등 고객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 업무, 내·외부 직원별로 차등 부여하고 고객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

고객정보를 USB 메모리 등 이동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한다.

조회한 고객정보를 PC 저장하거나 출력한 기록을 남기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외주업체와 외주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아웃소싱 상주 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 계약 만료 시 외주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파기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금감원 안에 고객정보의 부당 유출과 불법 유출 사례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kim@

MIT 형·누나와 함께 로봇조립 한국외국인학교(KIS) 학생들이 13일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에서 진행된 'MIT 사이언스&테크놀러지 클래스'에 참여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학생들로부터 로봇 조립 수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연말정산 시즌

국세청, 12개 소득공제 항목 서비스 개시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포인트 확대된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포인트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세대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과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준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민지기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2013 연말정산 유의점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절세 재테크를 할 수 있다.

먼저 2013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종합 한도가 처음 적용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가운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정기부금도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항목에서 빠졌다. 소득 금액의 3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10%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교육비 가운데 공제 대상인 것은 방과 후 특별 활동비, 유치원 등지에서 일괄 구입한 교재비, 급식비, 간식비 등이다. 반면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 금액이다.

초·중·고등학생이 방과후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매했더라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았다면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에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보증금이 있으면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김현정기자

사진공유 기능 탁월한 카메라

삼성전자는 13일 스마트 기기끼리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카메라 'WB350F'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근거리무선통신(NFC)과 와이파이(Wi-Fi) 무선랜을 이용한 강력한 사진 공유 기능 '태그 앤 고(Tag & Go)'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제공

'IT계 G2' 노리는 중국의 레노버

지난해 세계 PC시장 점유율에서 HP 꺾고 1위
스마트폰 판매량도 5% 달해 삼성·애플 추격

정치·경제 의획에서 미국과 양강을 이루는 중국. 중국을 대표하는 IT기업 레노버 역시 G2급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라는 걸출한 글로벌 플레이어에 가려 큰 빛을 보지 못했던 레노버가 최근 급성장하면서 IT업계 판도를 바꾸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와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레노버는 전 세계 PC 시장에서 전통의 강자 HP를 꺾고 1위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레노버가 지난해 세계 PC 시장에서 5377만 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 17.1%를 기록하며 5217만 대(점유율 16.6%)를 판 HP를 밀어냈다고 밝혔다.

레노버는 2년 전 HP를 꺾고 2위에 오른 뒤 분기 기준으로 HP를 제압하기도 했으나 연간 성적에서 HP를 이긴 것은 처음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IT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총 2억5000만 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레노버의 판매량은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1288만 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레노버는 LG전자를 따돌리고 삼성과 애플을 추격하는 위치에 섰다.

레노버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삼성과 애플을 추월할 수도 있다. 특히 15억 명으로 추정되는 인구를 보유한 중국을 안방으로 삼고 있어 1위 등극은 시간 문제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레노버는 '가격만 싼' 기존 중국 기업의 전략과 달리 '가격도 싼' 합리적인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다. 레노버의 대표 제품인 노트북 '예센셜'의 경우 30만원대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60만원대 제품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예센셜보다 고급 기종인 '싱크패드'는 국내에서도 수요가 많다.

스마트폰 'K900'은 레노버의 이미지를 삼성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갤럭시S4, 아이폰5S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다.

싸구려 이미지를 벗고 있는 레노버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다면 삼성·애플 양강이 힘을 합쳐 공격해야 하는 공룡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포털 다음의 사내벤처 '카닥' 애프터마켓 진출

포털 다음이 사내 벤처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사내 벤처인 자동차 외장 수리 견적 비교 서비스 '카닥'이 분사하면서 자동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프터마켓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카닥(http://cardoc.co.kr)은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카닥' 앱에 올리면 엄정한 수리 업체들로부터 실시간으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외장 수리 견적 비교 서비스다.

혁신적인 프로젝트 발굴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음 NIS가 선보인 첫 번째 프로젝트로 2012년 11월 사내 공모전에서 선정된 후 지난해 3월 정식 출시됐다.

카닥은 출시 이후 시장 테스트,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의 분석·교육 프로그램 등 다음 NIS의 육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수입차 운전자 중심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등 시장성도 검증을 받아 분사를 결정하게 됐다.

출시 이후 이용자들의 월간 견적 요청 수는 3000건을 넘었으며 누적 견적 요청 수는 약 2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입차 운전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며 수입차 운전자 약 12만 명이 카닥을 설치해 국내 등록된 수입차 약 82만 대(2013년 6월 국토교통부 기준)의 운전자 중 약 15%가 카닥을 이용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벤츠 4도어 쿠페… 클래스가 다른 날렵함

올해 첫 모델 CLA 공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올해 첫 모델인 CLA를 13일 서울 청담동 비욘드 뮤지엄에서 공개했다.

CLA는 A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든 4도어 쿠페 타입 승용차로, 200 CDI 디젤 모델과 45 AMG 4매틱 등 2가지가 수입된다.

차체 길이는 4630mm로 C클래스(4635mm)와 비슷하며 너비는 1775mm로 C클래스보다 5mm 넓고 높이는 1435mm로 C클래스보다 15mm 낮다. 따라서 더욱 날렵하고 속도감 있는 스타일링을 자랑한다.

대시보드와 시트는 A클래스와 거의 같다. 시트는 검정색, 크리스털 그레이, 블랙 사하라 베이지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아르티코 인조가죽으로 된 스포츠 시트를 선택 사양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엔진은 1.8ℓ 136마력 디젤과 2.0ℓ 360마력 가솔린 터보 등 2가지가 마련된다. 특히 AMG 모델에 장착된 가솔린 터보 엔진은 ℓ당 181마력의 최고 출력으로 동급 최고를 자랑한다. 메르세데스-AMG 최초의 4기통 모델인 이 차는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4.6초 만에 주파하는 가속력도 갖췄다.

또한 AMG 모델은 4매틱과 결합돼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평소 앞바퀴에 100%의 동력을 전달하다가 노면 상황에 따라 앞뒤 50대50으로 구동력을 자동 배분하게 된다. 이는 후륜 기반의 기존 4매틱 모델들이 평소 앞뒤 45대55로 구동력을 배분하는 것과 구별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CLA 클래스가 이미 출시된 A클래스, B클래스와 더불어 젊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홍기자 fomet@

창업자금 지원 업체 연대보증 면제 확대

올해부터 창업자금 지원 업체의 절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청은 우수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기업등급 SB0(4등급) 이상에서 SB-(5등급) 이상으로 확대, 창업자금 지원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도 전년보다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창업 성실 실패자에게 '재기 부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금융 재기 지원 정책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재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400억 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재창업을 위한 시설 투자에 따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5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100억원 규모의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80세도 가입되는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 발생자는 인구 10만 명당 남자 412.4명, 여자 397.7명으로 2009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75~79세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806명으로 전체 평균인 406.1명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고령자에게 암보험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반영해서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당뇨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박상용기자 sy@

'신기록 시계' 받은 이상화

13일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공식 타임키퍼인 오메가가 마련한 소치 올림픽 관련 홍보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숨길 수 없는 '삼성·현대차공화국'

두 그룹 영업이익 합계 43조원 '국내 전체의 30%'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편중 비율 급상승

삼성·현대차가 '재채기'하면 한국 경제는 '감기'걸린다.

국내 전체 기업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이 같은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두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삼성·현대차 공화국'이란 표현이 낯설지 않을 정도다.

13일 재벌닷컴과 CEO 스코어에 따르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 합계는 43조원에 달해 국내 전체 기업이 올린 영업이익(141조7000억원)의 무려 30.4%에 달했다.

두 그룹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해 2009년 19.7%(23조4000억원), 2010년 25.2%(35조2000억원), 2011년 24.6%(36조3000억원)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2012년 마침내 3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특히 재계 순위 1위인 삼성그룹의 비중이 가장 많이 올랐다.

<삼성·현대자동차그룹 경제 편중도>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양사 그룹 비중 (단위: %) 자료/CEO스코어 /연합뉴스

구분	연도	양사 그룹 비중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국내총생산(GDP)	2008년	23.1	5.9	2
국내총생산(GDP)	2012년	35.3	23.0	7.0
시가총액	2008년	21.9	18.2	3.7
시가총액	2012년	36.5	25.8	3.7
법인세	2008년	7.1	4.9	2.2
법인세	2012년	20.6	14.1	6.5
영업이익 (법인전체 기준)	2008년	11.2	7.8	3.4
영업이익 (법인전체 기준)	2012년	22.4	13.7	8.7

삼성그룹의 영업이익 비중은 2009년 13.6%(16조2000억원)에서 2012년 21.3%(30조2000억원)로 3년 새 7.7%포인트나 급등했다. 주력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2011년 7.9%에서 2012년에 13.1%로 급격히 상승했다. 단일 기업으로 유일하게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의 상승세도 놀랍다.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 비중은 2009년 6.1%(7조2000억원)에서 2012년 9%(12조8000억원)를 기록해 10%대를 곧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그룹의 비중은 2009년 19.6%, 2010년 18.7%, 2011년 17.1%, 2012년 12.8%로 뒷걸음질쳤다.

특히 주력사인 LG전자가 부진한 LG그룹은 2009년 6.3%였던 비중이 2012년에는 2.6%로 급락했다. 2009년 이후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현대차 두 그룹이 지난 2012년 법인세 비용의 20.6%나 차지하고 전체 시가총액에서 두 그룹 27개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4.9%에 달한다"며 "두 그룹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수록 경제 양극화는 물론 경제지표의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에서 "삼성과 현대의 경제 집중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 대응책 마련을 암시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중기 절반 가까이 올해 채용 소극적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직원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설문 참여 기업의 85.2%는 올해 직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직원을 채용한다'고 답한 기업은 45.1%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미정'이라 답한 기업은 14.8%였으며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기업도 40.1%나 됐다. 직원 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의 65.8%는 신입직과 경력직 모두 선발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채용할 직원은 경력에 따라 모집 분야가 달랐다. 신입사원은 주로 마케팅과 서비스 분야에, 경력사원은 재무회계와 광고홍보 분야에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군별로는 신입사원의 경우 영업·영업관리(33.8%), 서비스(23.1%), 마케팅(20.0%), 광고홍보(18.5%)직에서 충원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

반면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기업들은 영업·영업관리(35.7%), 재무회계(17.9%), 광고홍보(17.9%), 마케팅(16.1%), 생산·현장직(16.1%) 분야의 수요가 높았다.

/정운휘기자 unyun09

동아전람 'MBC건축박람회' 17일 대치동 세텍에서 개막

최근 건축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사이버 건축박람회'와 '제34회 MBC건축박람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건축 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건축 주택정보전 등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2014년 최신 건축 자재와 정보를 선보이게 될 이번 박람회에는 300여 개 업체가 참가, 3000개가 넘는 아이템이 전시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국명기자

올해 첫 수확한 태국 망고스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올해 처음 수확한 망고스틴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망고스틴은 태국 현지에서 항공 직송으로 들여오는 것으로 수도권 지역 5개 점포 식품관에서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직장인 열명 중 아홉 "올해 이직 희망"

인크루트 회원 설문 72% "이직 대상 기업 결정"

직장인 10명 중 9명가량이 올해 이직을 계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회원 603명을 대상으로 '올해 이직 및 취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85.6%가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올해 이직할 기업을 이미 정한 회원은 72.9%에 달했으며 평균 2.8개의 기업에 입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관심 분야(26.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적성(20.7%), 전공 분야(20.2%), 연봉(14.5%), 관련 경력(6.7%), 기업의 인지도(4.9%)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직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 준비를 위한 별도의 관리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 62.4%가 '없다'고 답했다. 관리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는 49.7%가 '종이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스마트폰 기본 달력 앱(31.0%), 취업포털 제공 취업 관리 앱(24.4%), 스마트폰 별도 일정 관리 앱(20.6%) 등을 꼽은 직장인도 많았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상당히 많은 직장인이 올해 취업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기업을 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국명기자

이공계 취업지원 위한 '전문 기술 연수'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공계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4년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예산으로 84억원을 투입, 30개 내외의 주관 기관을 선정해 약 2000여 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연수를 시행하고 취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생은 6개월간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연수를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월 30만~50만원의 연수수당도 지급된다. 연수 희망자들은 3월 이후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홈페이지(www.sneteb.or.kr 또는 pms.kpe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공계 청년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y4538

"교통 호재+미래가치… 동탄 들썩"

GTX 용역비 226억원 확보 — 올해부터 정거장 공사 돌입
삼성까지 18분 '강남권 흡수' — "이제 첫걸음 신중히 투자"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GTX에 대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착공이 가시권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노선과 연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신분당선과 분당선 개통 이후에도 강남까지의 이동 수단은 버스에 의존하고 있었던 터라, 화성 동탄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을 20분 내로 잇는 GTX의 존재감이 크다는 평가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GTX 관련 삼성~동탄 구간 226억원의 기본계획 용역비를 국비로 확보했다. 이 중 120억원은 실시설계비로 사용되고 106억원은 KTX와 함께 사용되는 수서~동탄 구간에 조성될 GTX 정거장 2곳의 건설에 쓰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양~동탄(A노선·73.7㎞), 청량리~송도(B노선·48.7㎞), 의정부~금정(C노선·45.8㎞) 등 3개로 이뤄진 GXT 노선 가운데 A노선이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A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당장 올해부터 정거장 공사가 착공에 들어간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탄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도 쾌재를 부르고 있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작년에만 9000가구 가까이 쏟아졌다. 최근 전세난의 여파로 상당수의 미분양이 소진됐지만 단기간에 집중된 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동탄과 삼성까지 이동시간을 현재 66분에서 18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GTX가 개통되면 서울 강남권 광역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어 물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권을 벗어난 전월세 세입자까지 유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반도건설 관계자는 "GTX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재로 보고 있다"며 "당장 교통 편리성은 물론 미래가치 측면에서도 뛰어나 강남 생활권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GTX 노선도.

인근 반송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까지 2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길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가 유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강남으로 오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 목적의 투자자도 많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전문가들은 GTX 사업이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만큼 수요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번 착공에 들어간 수서~동탄 구간만 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됐을 경우 2020년 개통된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GTX로 동탄 거주민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통 호재 하나만 보고 무턱대고 분양을 받거나 집을 계약하기보다 GTX 역과의 거리나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LH 빚 부담 준다

전세임대 부채 4조6000억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주택기금에 양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LH 앞으로 쌓이게 된 4조6000억원의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 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일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정부 대신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고 있다. 빌린 기금의 대출이자는 세입자로부터 받는 연 4% 수준의 임대료로 충당할 수 있지만 보증금 자체가 LH 부채로 잡히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LH와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증금 부채 총 4조6000억원 중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우선 양도한 뒤 내년에 나머지 2조2000억원을 넘기기로 했다. 이 경우 LH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정부 대신 직접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말 LH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박선옥기자

노후도시·산단 재생 본격화

올해부터 쇠퇴하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후화된 도시와 산업단지 등의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역 도시 ▲산업단지 부문의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 사업에 집중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13일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하는 도시재생사업에 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올해 경제 기반 2곳, 근린 재생 9곳 등 11곳의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해 성공 사례를 창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9년 선정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 제1산단과 대전 제1·2산단은 올해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생사업이 시작된다. 전주에는 75억원, 대전에는 150억원이 투자된다.

또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내년부터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들여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산 사상공단은 20억원을 투입해 올해 중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상가의 임대정보 제공에도 831억원을 배정, 집합건물 2만3000호에 대한 임대 사례 정보를 추가로 조사·제공키로 했다. /박선옥기자

13일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 14개 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는 1026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 강남 11개 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는 1306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세가는 1178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에 걸린 시세표의 모습. /연합뉴스

강북 전셋값도 3.3㎡당 1000만원

"서민 삶 더 팍팍해져"

1년 넘게 지속된 전세가 상승 여파로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서울 강북권 아파트도 3.3㎡당 전세가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다.

13일 KB부동산 알리지(www.kbreasy.com)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서울 강북지역 14개 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는 102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점 서울 강남 11개 구는 1306만원, 서울 전체는 1178만원의 3.3㎡당 전세가를 기록했다.

강북지역 아파트 3.3㎡당 전세가는 9월까지만 해도 989만원으로 1000만원을 밑돌았다. 하지만 10월 1006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뒤 11월 1017만원에 이어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닛 팀장은 "서민 주거지라는 인식이 강했던 강북에서조차 고가 전세가 대세가 됐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서울에 남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거나 싼 전셋집을 찾아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북지역에서도 도심·강남권과의 접근성에 따라 3.3㎡당 전세가가 차이를 보였다. 용산구(1076만원), 중구(1063만원), 광진구(1040만원), 마포구(1003만원) 등이 특히 강세를 나타냈고 성동구(997만원)가 10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박선옥기자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

오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발표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입지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감면 대상인 계획입지사업에는 택지 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 해당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20%로 하향 조정된다.

또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주며,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박선옥기자

어학 공부, 독서, 건강관리, 다이어트… 새해를 맞아 갖가지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실천은 쉽지 않다. 온갖 유혹에 흔들리다 보면 결심을 세운 채 며칠 만에 다짐은 이미 온데간데없는 경우가 다반사. 이럴 때는 한번 IT기기의 도움을 받아보자. IT 항상 도우미와 함께하다 보면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트레이너 '아이리버온' 독서습관 돕는 이북 '샘'

작심일년! IT야, 도와줘

◆영어 완전 정복도 가능=출퇴근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위버스마인드의 '뇌새김'은 기기 하나로 영어 단어 회화, 토익스피킹은 물론 중국어 회화까지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단어와 문장을 쉬운 그림으로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읽으며 뇌에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다.

특히 각 과목당 최대 4명까지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경쟁하듯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달에 한 권의 책 읽기 OK=나만의 도서관'으로 독서 습관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교보문고 이북 '샘'은 약정 기간 요금을 내고 전자책과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금제에 따라 매월 5권, 7권, 12권의 전자책을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독서 활동을 관리해주는 독서노트 서비스를 통해 단순 독서량 기록을 넘어 개인의 독서 취향과 패턴을 분석해준다.

◆스마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도=꾸준한 운동은 스마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아이리버의 '아이리버온'은 블루투스 이어세트에 센서를 결합해 심박수를 측정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살 빼기, 심폐기능 증진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시작하면 심박수에 따라 운동 강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

◆달라지는 S라인 눈으로 확인=운동 후 매일 달라지는 몸매를 사진으로 찍어 확인하는 것도 꾸준한 운동 비법 중 한 가지다. 모바일용 초소형 프린터인 LG '포켓포토' 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블루투스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해 곧바로 출력할 수 있다.

/박국렬기자 [illegible]

e스포츠서 재주 부릴 '곰'

IT Cafe

곽정욱 그래텍 대표

"지난해 투자 위주의 경영을 펼쳤다면 올해는 지난해 추진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성과를 가시화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곽정욱(47) 그래텍 대표는 지난 9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키워드는 생존과 가능성의 확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설립된 그래텍은 국내 1위 시장점유율로 주목받은 동영상 소프트웨어인 '곰플레이어'로 이름을 알렸다. 현재 5개 국어로 번역돼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 사용자는 400만 명에 달한다. 2006년에는 곰TV로 사업을 넓히며 영화, 드라마, e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공연을 간편하게 예매할 수 있는 모바일 컬처커머스 '티켓인포켓'을 출시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영화·TV 프로그램 정보와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합 서비스하는 '곰가이드' 모바일 앱을 선보였다.

곽 대표는 "그래텍은 곰플레이어를 시작으로 비디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전문성도 높여가고 e스포츠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며 "특히 그동안 PC를 중심으로 쌓아온 콘텐츠 사업을 고객 니즈에 맞춰 모바일, 태블릿 PC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수록 이용자들은 텍스트로 이뤄진 콘텐츠보다 영상 콘텐츠를 선호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된 영상을 선별해 제공하는 곰TV뿐 아니라 이용자들 스스로가 짧은 영상을 제작해 소통할 수 있는 비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곽정욱 그래텍 대표는 지난해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투자가 이어져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면 올해는 성과를 내 제2의 도약 틀 마련해내겠다고 밝혔다. /손진영기자 son@

2006년 곰TV 사업 이어 VOD 앱 '곰가이드' 선봬 비디오 SNS서비스 준비

"e스포츠 거센 한류 바람 해외 겨냥한 서비스 강화"

그는 그래텍이 현재 주력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e스포츠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 대표는 "올해는 e스포츠 방송 제작 및 콘텐츠 유통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곰 EXP'라는 새 브랜드를 내걸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그동안 인기를 누려온 스타크래프트 2 리그뿐 아니라 곰TV 클래식 시즌4 등 통해 스타크래프트1 리그를 선보이면서 이용자들에게 과거 스타1의 문화를 다시금 떠올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 제공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그는 "e스포츠 역시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곰TV를 통한 e스포츠 방송 시 해외 이용자들의 이용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곧 해외 버전의 사용자 환경(UI)을 개선해 곰TV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다양한 언어 제공과 해외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대표는 올해 성공에 대한 가능성도 자신했다. "지난해에는 스튜디오 확장, 곰TV 제공 콘텐츠 확장 등 다양한 투자를 진행했다면 올해는 성과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곰플레이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노하우를 쌓은 만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비디오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싸이메라' 싸이처럼 글로벌 인기

SK컴즈의 사진 보정앱 6000만 내려받기 돌파

사진 보정 앱 '싸이메라'가 전 세계 6000만 내려받기를 돌파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12년 3월 출시한 싸이메라가 6000만 내려받기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싸이월드 부진으로 지난 연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인 SK컴즈에 싸이메라는 강력한 주력 사업이다.

일명 '예뻐지는 카메라 앱'으로 불리는 싸이메라는 출시 9개월 만에 1000만 내려받기를 돌파하고 이후 1년 만에 5000만 내려받기를 추가했다. 특히 6000만 내려받기 중 75%에 해당하는 4500만 건은 해외에서 발생해 해외시장에서 더 좋은 반응을 얻는 중이다.

현재 싸이메라는 세계 22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일 300만 명 이상, 월간은 2000만 명을 웃돈다. SK컴즈는 3월 이내에 싸이메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SK컴즈 강민호 싸이메라 사업부장은 "싸이메라의 강점인 다양한 보정 꾸미기 기능을 통해 지인들과 사진을 재창조하며 즐기는 포토 SNS를 선보일 것"이라며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협업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슬희기자 unique@

청소년 40% "하루 1시간 모바일게임"

모바일게임이 대중화하면서 청소년들의 플레이 시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가 하루 1시간 이상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지난달 13일부터 4일간 모바일게임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분석한 '모바일게임 이용 행태 및 유료 결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1시간 이상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는 27.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이용자의 40.0%가 하루 1시간 이상 모바일게임을 즐겼다. 10대 이하 이용자 중 10.0%는 하루 2시간 이상 모바일게임을 했다. 1시간 이상 모바일게임을 하는 30대 이용자는 37.5%였으며 20대는 22.5%를 기록했다. 40대는 20.0%, 50대는 17.5%였다. 전체 응답자 중 모바일게임 유료 결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37.0%였다. 30대는 52.5%가 유료결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박성훈기자

KT LTE 서비스 고객 2년만에 800만 돌파

KT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제공 2년 만에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다.

2012년 1월 LTE 서비스를 시작한 KT는 지난 10일 마감 기준 가입자 798만7000명을 기록하며, 주말새 가입한 사용자들이 등록을 완료하면 8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비스 개시 5개월 만에 100만 명 돌파, 지난해 3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7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다시 3개월여 만에 800만 가입자를 돌파하며 시장에서 활력을 되찾고 있다.

KT는 최근 LTE 가입자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데 대해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광대역 LTE 효과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LTE 주파수 경매에서 1.8GHz 인접대역을 확보한 KT는 한 달 만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실시,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서울 전역과 수도권의 모든 시·군에서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리틀 추신수·김연아' 충돌 증후군 조심

신체 반복 움직임으로 뼈·연골 부딪치거나 인대 파열 '통증'… 운동별 발병부위 달라

최근 신체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돌증후군이란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뼈와 연골이 서로 부딪치거나 인대 뼈와 뼈 사이에 인대가 끼어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한다. 특히 신체의 잦은 사용과 반복적인 동작을 꾸준히 시행해야 하는 운동을 할 때 이런 충돌증후군이 나타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구·농구 '어깨충돌증후군' 조심해야

최근 가장 '핫'한 스포츠인 야구와 농구를 할 때는 '어깨충돌증후군'을 조심해야 한다. 어깨충돌증후군이란 어깨의 볼록한 부분인 견봉과 어깨 힘줄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서 잦은 마찰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야구는 공을 던지거나 스윙을 반복할 때 어깨충돌증후군이 나타나기 쉬우며 손으로 공을 다루는 농구 역시 반복적인 동작이 계속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만약 팔을 90도로 회전할 때 심한 통증이 있거나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하면 어깨충돌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조수현 강북 힘찬병원 부원장은 "발병 초기에는 운동, 주사, 체외충격파 치료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관절내시경을 이용해 어깨 힘줄과 충돌되는 견봉 부위를 다듬어주는 견봉 성형술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태권도 발차기 땐 고관절 조심

남녀노소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스포츠인 태권도를 할 때는 '고관절충돌증후군'을 주의해야 한다.

태권도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호신 무술로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데 손보다 반복적인 사용이 많은 발차기가 충돌증후군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평소 유연함이 부족한 사람이 다리를 찢는 등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발차기 연습을 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넓적다리뼈인 대퇴골과 골반을 연결하는 고관절이 비정상적인 충돌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거나 양반다리를 취했을 때 쉬가 난 것처럼 저릿하면서 사타구니 부근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2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다. 스케이트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발목을 삐게 되면 발목충돌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스케이트 탈 때 자주 생기는 발목충돌증후군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케이트는 짜릿한 속도감과 스릴이 매력적이지만 '발목충돌증후군'에 노출되기 쉬운 스포츠다. 특히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신발 밑창에 금속 날이 부착돼 있는 스케이트화를 신고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려워 발목을 접질리기 쉽다. 이렇게 발목을 삐게 되면 발목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 또는 관절막이 찢어져 뼈 사이로 끼어들어 되고 이는 통증을 유발하는 발목충돌증후군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스케이트 외에도 축구 등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거나 하이힐을 신고 걸을 때도 발목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증상을 방치한다면 만성적인 발목 염좌로 진행될 수도 있어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동현 강북 힘찬병원 과장은 "발목충돌증후군은 1차 부상 이후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부상 후 통증이 지속되면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부상을 방치해 발목 인대가 약해진 경우에는 인대 강화 주사요법이나 인대 봉합술 및 재건술로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예비부모 '100일 간의 약속' 금연·금주

계획 임신 6단계 플랜

연초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은 임신 계획이다. 주변의 관심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이꽃마을한방병원의 '계획 임신 6단계 플랜'을 소개한다.

◆마음 준비하는 것이 첫 단계

계획 임신의 첫걸음은 적절한 임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 육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임신 후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으로 이사 등과 같은 신변의 큰 변화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부부 모두 한 아이의 부모가 될 마음가짐이 됐는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후 부부는 검사를 통해 질병을 체크해야 한다. 임신 전 미리 검사를 받고 작은 질환이라도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임신 중에는 약물 치료가 어렵고 자칫하면 질병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궁과 난소의 건강 상태도 미리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남성은 100일마다 정자가 새로 생산되기 때문에 최소한 임신 3개월 전부터 금연과 금주를 통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여성 역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몸 관리, 적정 체중이 필요하다. 이때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은 정서적인 교감까지 가능하게 해 부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호르몬의 균형을 위한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또 체질에 맞는 식단을 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여성은 패스트푸드나 보리밥, 돼지고기, 오징어, 밀가루 식품 등 찬 성질의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계획 임신 5단계는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후 임신 한 달 전부터 병원을 다녀 생리 주기와 배란일을 체크해 정확한 배란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차가운 곳에 앉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임신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여성에게 스트레스는 생리 불순, 배란 장애 등 여성질환을 불러오는 주범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그때그때 적절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황재용기자

국민 85% "건강공동체 필요"

일반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는 13일 한스커네트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 공동체 수용도에 대한 대국민 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 공동체란 가족과 주변 사람, 전문가와 질병 경험자 등이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 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이런 건강 공동체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85.1%가 건강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건강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연령별·소득 수준·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건강과 관련해 사회나 주변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긍정적(36.8%)이라는 대답이 부정적(17.1%)인 대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0.3%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스마트 건강 공동체 서비스'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윤 교수는 "정부와 개인, 의료계와 기업이 함께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건강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이어케어네트워크 난청 예방식품 '이헬퍼' 할인

귀 전문 이비인후과 네트워크인 이어케어네트워크가 설날을 맞이해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명·난청 예방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이헬퍼'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헬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은행잎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명과 난청 증상 완화는 물론 혈행 개선과 성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제품은 청각과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이어케어몰'과 이어케어네트워크 병원 고객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핸드드립 커피 명가들 맛과 향의 전쟁

이라운지·할리스·커피베이 등 개성있는 원두로 제품 출시 잇따라

지난 6년간 매 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여온 국내 커피 및 차(茶) 관련 지출액이 지난해 1·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 불황과 함께 증저가 커피전문점의 증가 및 직접 내려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 열풍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핸드드립 커피는 커피 원산지 본연의 맛과 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커피다. 일본에서는 핸드드립 커피가 '2013년 편의점 히트 상품 1위'로 선정될 만큼 인기가 뛰어나다. 국내 커피 업계도 그 인기를 반영하듯 핸드드립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라운지 '블렌딩 5종 핸드드립 커피'는 구수함과 깔끔한 단맛이 인상적인 '리프레시 브라운', 스모키 향과 깔끔한 뒷맛이 일품인 아라비카 100% 블렌딩 '자밀 블랙', 최고급 C.O.E(Cup of Excellence) 커피의 고급스러운 맛과 풍미를 선사하는 '퓨어 화이트', 매혹적인 산미가 특징인 '시크 퍼플', 최고급 에티오피아 철바 원두 특유의 풍부한 베리 향이 가득한 '셀러스 레드'로 구성됐다.

할리스 커피두고 드립커피 2종은 할리스커피 연구소에 있는 국제 공인 커피 감별사들의 까다로운 커핑테스트에서 고득점을 받은 최고급 원두만을 사용한 고급 커피다. '플라워 브리즈 블렌드'는 브라질과 에티오피아산 원두를 사용해 견과류의 고소한 단맛과 산뜻한 신맛이 잘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스모키 브라운 블렌드'는 브라질과 과테말라 원두를 사용해 진한 커피의 중후함을 담았다.

커피베이 드립커피 2종은 '에스프레소 블렌드 드립커피'와 '에티오피아 이가체페'로 구성됐다. '에스프레소 블렌드 드립커피'는 콜롬비아 수프레모·인도 카페로열 등 4가지 원두를 배합한 블렌드로 독창적인 커피 맛이 일품이다. 풀시티 로스팅으로 고소한 향과 단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에티오피아 이가체페'는 에티오피아의 야생 커피로 재배되는 고급 원두를 사용해 부드러운 꽃내음과 산맛이 깔끔하게 전해진다.

이라운지의 핸드드립 커피 세트.

/정영일기자 ume@metroseoul.co.kr

식음료 '셰어슈머' 마케팅 훈훈한 손짓

식음료업계가 새해를 맞아 '셰어슈머(Sharesumer)' 트렌드를 타깃으로 하는 '먹고 마시는 나눔 마케팅'을 잇따라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셰어슈머란 '나누다'를 의미하는 셰어(share)와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consumer)를 조합한 용어다. 구매를 통해 쉽게 기부를 실천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등 일상 속 자연스러운 소비를 즐거운 나눔으로 연결시키는 소비자를 뜻한다. 식음료업계는 이런 셰어슈머 트렌드에 발 맞춰 소비자들이 먹고 마시고, 일상을 즐기는 동시에 의미 있는 나눔 문화에 동참할 수 있는 독특한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매일유업의 커피 브랜드 '바리스타(BARISTAR)'는 올해 초 커피업계 최초로 커피 예술 나눔에 함께 하는 '바리스타 나누기 1%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코카콜라는 가족과 친구, 연인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패키지 '셰어 어 코크(Share a Coke)' 제품 22종을 선보였다. 상품저렴 기부금을 결제하거나 포인트 카드로도 기부할 수 있는 신개념 나눔도 눈길을 끈다.

CJ그룹은 고객과 함께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통합 기부 프로그램인 '러블드림 캠페인'을 선보였다. 빕스를 비롯해 올리브영, CGV 등 오프라인 매장 이용 시 소비자가 기부 의사를 밝히면 상품저렴 기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북설악 농수산의 '설지산황' 제품

상황버섯 항암성분 추출 신기원

북설악 농수산-대전대 공동연구 산학협력 체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약재가 있다. 동의보감에서 '상목이(桑木耳)'라는 이름으로 탕액편에 기록돼 있는 상황버섯이 그것이다.

이 버섯의 두드러진 효능은 항암 효과다. 상황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이 체내에 있는 발암물질을 분해·배설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뛰어난 지혈 작용, 당뇨병 예방과 개선, 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황버섯의 유효 성분들은 끓여야만 얻을 수 있고, 최대 추출도 10분의 1에 그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한 '북설악 농수산(www.seomk.net)'이 오는 16일 대전대학교와 함께 상황버섯의 산·학 협력을 통해 상황버섯의 성분과 임상, 염증, 개량, 피부 질환 연구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회사는 23년간 한국 전통의 상황버섯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업체로 2009년에는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 북설악 농수산은 지난해 12월 상황버섯의 고형분 1% 엑기스 이외에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엑기스로 실제 상황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북설악 농수산 김성용 대표는 "특정 상황버섯 종류에서 주요 항암 효능인 베타글루칸 성분을 90% 이상 추출하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며 "항암·암 예방·면역력 강화, 혈당 저하·숙독 해독, 과음 등에 좋은 베타글루칸 다량 추출 기술 개발로 공급 원가를 낮추고 주요 성분은 극대화한 한방 앰플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개척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대전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상황버섯의 효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효 성분의 다량 추출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신제품 생산도 시도키로 했다.

/김태용기자

르네상스 서울 '설 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속 있는 가격의 '설 패키지'를 선보인다.

실속 있는 가격의 '해피 설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 객실 내 한과 6개 셋업과 실내 수영장 및 사우나 무료 이용 등을 포함해 15만3000원(세금·봉사료 별도)에 제공된다. '조이풀 설 패키지'는 18만원(세금·봉사료 별도)에 디럭스 룸 1박, 떡국과 한과가 제공되는 카페 엔리제 2인 조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2)2222-8500

제주항공 '7개 예능팀' 월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제주항공을 타면 고객이 즐거워야 한다'라는 모토로 객실 승무원들이 ▲마직팀 ▲샤티플코케아능 ▲신바라팀 ▲풍선의 달인님 ▲게임팀 등 총 7개 서비스팀 비행편별로 기내 특화서비스팀을 운영한다.

고정 편성이 시작되는 1월에는 인천을 기점으로 괌·방콕·홍콩·세부·나고야·도쿄 등 7개 노선 총 25편의 기내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예고된 특화 서비스로 질 높은 객실 서비스를 실행할 방침이다.

쌤소나이트 레드의 새 모델

가방 브랜드 쌤소나이트 레드가 새로운 글로벌 모델인 김수현과 안젤라베이비의 화보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이번 화보에서 젊은 감각의 비즈니스 캐주얼을 다양한 스타일로 선보였다. 김수현이 착용한 백팩 '리베'는 정장은 물론 캐주얼한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돼 커플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다.

더 많은 화보와 TV 광고 메이킹 필름은 20일 쌤소나이트 레드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에 공개될 예정이다.

냉장고 얼룩방지엔 글리세린

새해맞이 집안 묵은 때 제거 '공간마다 다른 비법' 눈길

새해를 맞아 집 안 대청소를 계획하는 가정이 많다. 13일 생활용품 업체 파존이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어낼 청소 노하우를 소개했다.

습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욕실은 청소하기 번거로운 곳 중 하나다. 욕실 청소를 할 때 먼저 곰팡이가 번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하고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와 물때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아토피피부염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타일 사이의 샤워 커튼 등에 핀 곰팡이는 식초를 사용해 없앨 수 있다. 식초를 뜨겁게 데워 스프레이통에 담고 곰팡이가 핀 곳에 충분히 뿌려준다. 10~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스펀지로 세게 문질러준다.

침대 매트리스는 오래 청소하지 않으면 자면서 흘린 땀이나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 등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매트리스를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공청소기는 딱딱한 바닥의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용도여서 푹신한 매트리스의 먼지는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울세제를 희석시킨 물을 분무기로 뿌려 때를 불린 다음 울세제를 매트리스에 듬뿍 묻히고 물기를 적당히 짠 걸레로 비벼 닦는다. 이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된다.

◆식초 두 스푼으로 전기밥솥 세척

냉장고에 먹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 중인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버리고 냉장고 선반을 꺼내 놓아둔은 음식물 자국을 식초 묻힌 천으로 닦아낸다. 이때 약국에서 파는 글리세린으로 마무리하면 일종의 코팅 효과를 줘 쉽게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

전기밥솥은 물을 절반 정도 채운 후 식초를 두 스푼 정도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른다. 물이 끓을 때 생긴 수증기가 손으로 닦기 힘든 부분까지 깨끗이 세척해준다.

기름때와 음식물 찌꺼기로 오염되기 쉬운 가스레인지는 베이킹소다를 뿌린 다음 물에 적신 천을 올려놓아 불린 뒤 닦는다. 삼발이와 버너 받침대는 분리해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은 물에 담가 끓인 다음 곧바로 불을 끄고 하룻밤 뒀다가 베이킹 소다로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구김 생긴' S라인, 속옷 때문일 걸!

브래지어·팬티 세탁 요령

잘 정돈된 속옷이 예쁜 몸매를 만들어준다지만 두툼한 옷을 입는 겨울철에는 소홀히 하기 쉽다. 게스언더웨어 관계자는 "몸에 직접 닿는 속옷은 세탁을 자주 하는 만큼 망가지기 쉬운데 변형된 속옷을 계속 착용하면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다"며 "평소 속옷의 재질과 모양 등을 고려해 세탁·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브래지어는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보다는 손빨래를 이용한다. 손으로 살살 비벼주되 장시간 세탁 시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빨고 충분히 헹군다. 와이어나 컵이 구부러졌을 경우 건조대에 널기 전에 손으로 만져 모양을 바로 잡아주면 새것처럼 다시 입을 수 있다.

팬티 역시 손빨래가 좋은데 레이스가 있는 경우 올이 풀리지 않게 주의한다. 세탁기에 돌릴 땐 세탁망을 사용하고 울세탁 등 가장 약한 모드로 설정한다.

평소 보관법도 중요하다. 브래지어는 컵이 구겨지지 않도록 엇갈려 포개 놓고, 팬티는 밴 아래 부분을 허리 안쪽으로 말아 접어 양옆을 감싼다.

최근에는 큐빅이나 화려한 장식이 가미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을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다른 속옷까지 망가질 수 있으므로 따로 두는 게 좋다. /박지원기자

'국민 식용유' 카놀라유

콩기름·포도씨유 누르고 3년 연속 판매 순위 1위

국내 식용유 시장에서 가격이 중저가로 저렴하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이 가능한 카놀라유가 콩기름·포도씨유·올리브유 등을 제치고 3년 연속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CJ제일제당이 닐슨 등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카놀라유는 2011년 식용유 시장의 양대 산맥인 전통의 콩기름과 포도씨유를 넘어서며 1위에 올라섰다. 2012년에 1000억원대 규모로까지 성장한 카놀라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역시 다른 식용유들을 누르고 3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에 포도씨유는 2010년 9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하며 콩기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었지만, 이후 카놀라유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밀려 지난해 500억원대 규모로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카놀라유가 고성장을 보이며 '국민 식용유'로 빠르게 자리 잡은 것은 발연점이 높아 부침·튀김·구이·볶음 등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다양한 요리 활용이 가능하고, 가격도 올리브유·포도씨유 등 다른 프리미엄 식용유보다 40% 이상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말기자

통등심·모짜렐라…돈가스 선물세트 '군침'

강강술래 HACCP 인증 푸짐한 중량·3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이달 말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ll.com),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신제품 통등심돈가스(3박스·2.16kg·3만19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kg·3만6000원)를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통등심돈가스는 100%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사용해 맛이 담백하고 고소하며 생(生)빵가루를 입혀 정통 돈가스 맛을 느낄 수 있다. 모짜렐라돈가스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100% 자연 치즈를 사용했다.

HACCP 인증시설에서 생산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1장의 무게가 180g으로 푸짐해 식사 대용은 물론 도시락 반찬이나 영양 간식, 술안주로도 좋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성은 더하고 최대 43% 할인을 통해 거품은 뺀 알뜰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방부제·색소·조미료를 넣지 않아 건강 선물로 좋은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4만원,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45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펀한우떡갈비세트(3박스·1.08kg)'는 4만4500원,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임자 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1.08kg)'는 2만77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로제타스톤 '토탈리 플러스' 할인

어린이 영어 학습 상품 오늘 GS홈쇼핑서 판매

외국어 학습 브랜드 로제타스톤은 14일 낮 12시40분부터 GS홈쇼핑에서 어린이 영어 학습 상품인 '토탈리 플러스(TOATLe+)'를 선보인다.

이날 방송에서 로제타스톤은 토탈리 플러스를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자동 주문 전화 시 3만원 추가 할인을 제공, 52만7100원에 판매한다.

또 신용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에 7일 무료 체험 기회를 주고, 약 11만8000원 상당의 2개월 온라인 학습권도 증정한다. 이를 통해 3개월 동안 미국 원어민 전자와의 실시간 화상 학습은 물론 다양한 학습 게임과 글로벌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한편 방송 중 로제타스톤은 토탈리 중국어도 5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제공한다.

토탈리 플러스는 파닉스 이동 및 초등학생의 기초 영어 학습 솔루션 패키지로 컬러 워크북과 낱말 놀이를 위한 300장의 플래시 카드, 오디오 학습 CD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RosettaStone.co.kr 1588-7718 /전효진기자

빅뱅이 1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객석을 꽉 채운 5만여 관객의 함호를 받으며 '빅뱅 재팬 돔 투어 2013~2014' 앙코르 공연을 갖고 있다. 작은 사진은 빅뱅의 멤버인 태양, 탑, 대성, 지드래곤, 승리(왼쪽부터)가 무대에 올라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빅뱅 손끝 따라 춤추는 5만개 노란물결

5인 5색 무대는 단독 콘서트 같아… 돔투어 총 77만명 1000억원대 수익 …"빅뱅은 현지서 글로벌 아티스트"

日 6대 돔 투어 피날레 오사카 공연

빅뱅이 1000억원대 일본 돔 투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16일 사이타마 세이부돔에서 시작한 '빅뱅 재팬 돔 투어 2013~2014'는 오사카 교세라 돔, 후쿠오카 야후오쿠! 돔, 나고야 돔, 도쿄 돔, 삿포로 돔 등 6대 돔을 돌아 다시 교세라 돔에서 앙코르 공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빅뱅은 해외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일본 6대 돔 투어를 개최하며 K-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에그자일 이어 유일 오사카서만 6회

13일 열린 마지막 공연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시작됐음에도 5만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빈틈 없이 채우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루하루'의 일본어 버전으로 무대에 오른 빅뱅은 2009년 발표한 일본 데뷔 싱글 '마이 헤븐', 일본 레코드대상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가라가라 고' 등을 비롯해 '판타스틱 베이비' '배드보이' 등을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였다.

다섯 명의 멤버들은 다양한 솔로 무대로 마치 단독 콘서트와 같은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단독 월드투어로 57만 명을 끌어모은 지드래곤은 '삐딱하게' '크레용'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태양은 올 겨울 발표한 신곡 '링가링가'로 빼어난 가창력과 힘 넘치는 퍼포먼스를, 탑은 솔로곡 '둠다다'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줬다.

대성은 오리콘 위클리 앨범차트 2위에 오른 솔로 앨범 '디스커버' 중 수록곡 '윙스'를, 승리는 오리콘 데일리 앨범차트 1위에 오른 '렛츠 토크 어바웃 러브' 중 수록곡 '보쿠오 미츠메테'를 부르며 만능 엔터테이너다운 재능을 선보였다.

빅뱅은 이번 투어 동안 세이부 돔(지난해 11월 16~17일) 8만 명, 야후오쿠 돔(12월 7~8일) 10만 명, 나고야 돔(12월 14~15일) 8만 1000명, 도쿄 돔(12월 19~21일) 16만5000명, 삿포로 돔(1월 4일) 4만5000명, 교세라 돔(지난해 11월 26~12월 1일·1월 11~13일) 30만 명 등 총 77만1000명을 동원했다.

티켓은 한 장에 9500엔으로 티켓 매출만으로 73억2000만 엔(약 748억원)을 벌어들였다. 여기에 공연장에서 판매한 부가 상품 매출까지 포함하면 빅뱅은 3개월간 일본 6개 도시를 돌며 10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

해외 아티스트 최초의 6대 돔 투어 기록뿐 아니라 일본 전체 가수를 합쳐 교세라 돔에서 단일 투어 동안 6회 공연을 한 가수는 일본 최정상 그룹 에그자일에 이어 빅뱅이 두 번째다.

◆K-팝 가수 아닌 글로벌 아티스트

이 같은 빅뱅의 높은 인기는 노래, 패션, 댄스 등에서 차별화된 개성으로 일본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개별 활동으로 각자의 개성을 부각시킨 동시에 인간적인 매력으로 친근함을 전했다.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MC로 활동하고 있는 승리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며 이날 공연에서도 음악과 음악 사이의 빈 공간을 위트로 가득 채웠다.

와타나베 요시미 YG재팬 사장은 "멤버 전원의 캐릭터가 재미 있는 그룹은 일본에서도 흔치 않다. 승리는 골든 타임 유명 버라이어티에, 지드래곤은 음악 방송에, 탑은 영화관에 등장해 일본 팬과 만난다"며 "일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빅뱅 5명이 모두 들어와 있으며, 이들이 뭉쳤을 때 더욱 크고 멋진 화학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사장은 또 "빅뱅은 일본에서 K팝 가수가 아닌 글로벌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팬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로부터 폭넓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메이저 매체 노출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쳐 앞으로 일본의 어떤 곳에 가도 빅뱅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게 새로운 현지 전략이다"고 밝혔다. /오사카=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3

너를 만나,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tvN 방송 / 2014년 1월 13일 첫방송

김소연 | 성준 | 남궁민 | 왕지원 | 박효주 | 윤승아 | 박유환 | 유하준 | 정유진

tvN | JSpictures

걸스데이 '에브리 해피데이'

음악방송 3관왕·CF 엇단 러브콜···가요계 대세 등극

걸스데이(사진)가 무대에서 외치던 '에브리데이 걸스데이'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컴백한 걸스데이는 여러 TV 가요 프로그램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최고의 주가를 달리며 가요계 대세가 됐다. 타이틀곡 '썸씽'이 8일 MBC 뮤직 '쇼 챔피언'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MBC '쇼! 음악중심', 12일 SBS '인기가요'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올해 4년차로 데뷔 초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은 지난해 '여자대통령', '기대해' 등을 히트시키며 가요계를 이끌더니 올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이다.

가요계를 넘어 광고계에서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13일 소속사에 따르면 걸스데이는 이달 전자·게임 등 업종에서 7개 브랜드와 CF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밖에도 여러 건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걸스데이가 '썸씽'으로 데뷔 이래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화장품·의류·제화 등 CF 의뢰와 각종 행사 섭외가 쇄도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0% 성장한 7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해 컴백과 함께 지상파 3사 1위 석권과 광고 20개를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걸스데이가 그 목표를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순호기자 ysw@metroseoul.co.kr

유리 6세 연하 골퍼와 결혼

혼성그룹 쿨의 멤버 유리(사진)가 6세 연하의 골프선수와 다음달 결혼한다.

유리는 다음달 22일 4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지난달 양가 상견례를 가지고 날짜를 확정했다. 그러나 장소나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예비 신랑은 미국에 거주하며 골프선수 겸 골프 사업가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 왔다.

신혼여행은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신접살림 역시 미국에 차려 유리는 당분간 연예 활동을 쉬고 내조에만 전념할 계획이다.

앞서 2012년 가수 백지영이 동갑내기 절친한 친구인 유리의 열애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석진환기자 [illegible]

동방신기 정규 7집 '텐스' 한국·대만 주간차트 1위

동방신기(사진)가 정규 7집 앨범 '텐스'로 한국과 대만의 음반 시장을 휩쓸고 있다.

6일 발매된 동방신기의 새 앨범 '텐스'는 한터차트·핫트랙스·신나라레코드 등 각종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에서 주간차트(1월 6~12일) 1위를 휩쓸며 동방신기의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또 동방신기는 대만 음반 판매량 집계 차트 파이브 뮤직에서도 한일 주간차트(1월 3일~9일) 1위에 올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더욱이 이번 앨범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매체 빌보드에서도 상세한 리뷰를 통해 "마이클 잭슨, 브루노 마스 등 그 외 R&B 팬들도 만족시킬 만한 앨범"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타이틀곡 '썸씽'도 "과거의 현재의 사운드가 성공적으로 결합된 곡"이라고 소개됐다.

/유순호기자

'굿모닝 베이비' 발표 에이핑크 "데뷔 1000일이에요"

걸그룹 에이핑크(사진)가 디지털 싱글 앨범 '굿모닝 베이비'로 돌아온다.

12일 데뷔 1000일을 맞은 이들은 13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굿모닝 베이비'를 발매했다.

자신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보이는 이 노래는 이단옆차기와 이단옆차기 사단 편조, 타스코가 힘을 합쳐 탄생시킨 미디엄 템포의 댄스곡이다. 오케스트라와 브라스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 수많은 남성 팬들의 아침을 깨워줄 '기상송'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이핑크는 올 상반기 컴백을 목표로 자가 앨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엑소 수호 '총리와 나' 출연

가요계 대세 엑소 멤버 수호(사진)가 처음 연기 도전에 나선다.

수호는 KBS2 '총리와 나'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녀시대 윤아를 지원사격하며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총리와 나' 측은 13일 "수호가 10회부터 12회까지 총 3회 분량에 등장한다"면서 "권율(이범수)의 딸 나라(전민서)가 첫눈에 반하는 성당 밴드부 멤버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 드라마는 고집불통 대쪽 총리 권율과 그와 결혼하려고 하는 20대 꽃제자 남다정(윤아)의 로맨스를 그린다.

/탄실호기자

B1A4 신곡 '론리' 단박에 음원 올킬

그룹 B1A4(사진)가 신곡 '론리' 발표와 함께 음악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13일 공개된 B1A4의 정규 2집 '후 앰 아이'의 타이틀곡 '론리'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벅스·네이버 뮤직·다음 뮤직·싸이월드 뮤직·올레뮤직·소리바다 등 주요 음원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멜론과 엠넷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진입했다.

또 '사랑 그땐', '오 마이 갓', '벽차', '예뻐' 등 다수의 수록곡도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다.

'론리'는 B1A4 리더 진영의 자작곡으로 평범한 일상이 이별 후 에이즐으로 다가오는 것을 사실적인 가사로 표현했다. 한층 성숙된 B1A4의 음악성이 돋보이는 곡이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8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해 더욱 발전된 음악적 역량을 발휘했다.

한편 B1A4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음악 방송 활동에 돌입한다.

/유순호기자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오른 영화 '아메리칸 허슬'의 데이비드 O 러셀 감독(가운데)과 주연배우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리어나도 디카프리오. /로이터연합뉴스

'아메리칸 허슬' 3관왕

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작품상·여우주연상 등 석권 디카프리오 남우주연상

데이비드 O 러셀 감독의 영화 '아메리칸 허슬'이 제7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다.

이 영화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코미디·뮤지컬 영화 부문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에이미 애덤스), 여우조연상(제니퍼 로런스) 등 3개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다인 7개 부문 후보에 오른 바 있다.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도 선보여질 이 영화는 1970년 후반 미국 뉴저지를 배경으로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FBI 함정수사에 사기꾼이 협력해 진상을 폭로한 실화를 담았다. 크리스천 베일, 에이미 애덤스, 제니퍼 로런스, 브래들리 쿠퍼, 제레미 레너의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한다.

드라마 영화 부문에서는 스티브 매퀸 감독의 '노예 12년'이 작품상을 받았다. '아메리칸 허슬'과 마찬가지로 7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1개의 트로피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감독상의 트로피는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가져갔다.

코미디·뮤지컬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리어나도 디카프리오에게 돌아갔으며, 드라마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의 영예는 각각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슈 매코너헤이와 '블루 재스민'의 케이트 블란쳇이 안았다.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가 매년 주최하는 골든글로브상은 전통적으로 아카데미상을 점칠 수 있는 지표로 손꼽혀 '아카데미 전초전'으로 불린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3월 초 열린다.

/박선영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제2의 설국열차' 만든다

CJ E&M 글로벌 프로젝트 공개

CJ의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사업 부문이 올해를 글로벌 기업 면모의 원년으로 삼고 해외 진출을 가속화 한다.

CJ E&M은 13일 "올해 제2의 '설국열차', '슈퍼스타 차이나' 탄생을 목표로 영화·방송·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들의 공동 제작 및 기획·투자, 그리고 포맷 수출 사업들을 추진하며 해외 매출 비중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 부문은 미국에서 현지 제작사와 공동 제작을 통해 '메이크 유어 무브'를 선보이고, '파이널 레시피'와 애니메이션 '다이노 타임' 등을 영어로 제작한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한국과의 합작 프로젝트로 각각 '평안도', '권법', '러브 앤 판체리'와 '오이가 맹랑한 계(De Hoi Tinh)' 등 선보인다.

방송 부문은 tvN '꽃보다 할배'가 중국 버전으로 제작될 예정으로 현재 현지의 유력 위성 방송사와 포맷 판매를 협의 중이다. tvN '나인'은 미국에 포맷이 판매돼 현재 파일럿 방송을 위한 시나리오 작업중이다. 미국 지상파 채널인 ABC 방송사에서 방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tvN '꽃보다 할배'의 출연진 /CJ E&M 제공

공연 부문에서는 올해 일본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해 현지 토착화를 추진한다. 또 중국 문화부와 CJ E&M의 합작회사를 통해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 중·소·대형 극장을 연다. 브로드웨이 등 글로벌 크리에이터들과 직접 프로듀싱을 진행해 해외에서 히트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CJ E&M 측은 "올해 그동안 일궈온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 한류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 한류 확산에 이바지 할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선영기자

'악동' 비버 이번엔 이웃집에 계란 투척

잇따른 기행으로 '할리우드의 문제아'로 낙인 찍힌 팝스타 저스틴 비버(사진)가 이번에는 이웃에게 계란을 투척했다.

13일 미국 연예매체 TMZ닷컴에 따르면 비버는 9일(현지시간) 그가 사는 로스앤젤레스 칼라바사스의 이웃집에 계란 여러 개를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비버가 그의 집 현관문에서 달걀을 던지고 있었다. 발코니에도 올라가 나를 겨냥해 던지면서 소리까지 질렀다"면서 당시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비버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각종 기행을 벌여 문제를 일으켰다. 호주에 방문했다가 자신이 머물던 호텔 담벼락에 낙서를 했고, 브라질에서는 성매매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박선영기자

'카사노바' 종석·'일진' 보영…

'피끓는 청춘' 22일 개봉 80년대 농촌로맨스 그려

이종석·박보영 주연의 영화 '피끓는 청춘'이 이달 22일 개봉 날짜를 확정하며 관련 스틸을 공개했다.

이 영화는 1982년 충청도를 배경으로 불타는 농촌 로맨스를 그린다. 이종석은 극중 전설의 카사노바 중길 역을, 박보영은 충청도를 접수한 여자 일진 영숙 역을 맡았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은 중길의 여자 작업기를 담고 있다. 중길을 좋아하는 영숙(박보영), 중길이 좋아하는 소희(이세영), 중길에게 넘어온 반장 금희와 함께 있는 모습이 중길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대세 배우 이종석의 파격적인 복고 패션이 눈길을 끈다.

영화 '피끓는 청춘'의 스틸컷. 이세영, 이종석(왼쪽부터).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에는 1980년대 데이트 코스로 꼽히는 빵집, 롤러스케이트장, 통학 기차 등도 등장해 그 시절 청춘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박선영기자

장희진 日 영화 캐스팅

배우 장희진(사진)이 올 상반기 일본 개봉 예정인 영화 '세상의 끝을 찾게'로 열도 공략에 나선다.

소속사는 13일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격정적인 순애보를 펼치는 톱스타로 출연 중인 장희진이 영화 속에서는 180도 다른 매력을 가진 청순 미인 수연 역으로 분해 일본 스크린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작은 섬에 살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는 엄마를 본교 선생님 수연과 흥신소 직원으로 의뢰 행방을 가진 그녀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동권이 찾는데 사랑에 빠지며 겪게 되는 사랑과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비정한 도시'의 각본과 감독을 맡았던 김문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드라마 '히어로'와 '역전의 여왕'을 탄생시킨 아졸른 시네마가 제작을 맡았다. 기획 단계부터 일본 개봉 예정작으로 알려져 한·일 영화계의 주목을 동시에 받았다.

장희진은 "이번 영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게 생각한다. 배테랑 스태프들과 함께 최고의 영화로 찾아 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캐스팅 소감을 밝혔다.

/박선영기자

태극전사 최다 67명 소치 뛴다

'메달밭' 빙상 28명 확정 · '썰매 기적' 봅슬레이에 11명 참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태극전사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 출전한 48명의 선수단 숫자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다인 67명 내외의 선수가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최종 엔트리가 확정되는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등 썰매 종목과 스키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은 사실상 출전권의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한국 선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빙상이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5명, 쇼트트랙에서 10명, 피겨스케이팅에서 3명의 출전이 확정됐다.

4년 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가능성을 보인 종목 다변화 경향이 이번 대회에서 더욱 뚜렷해지면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났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썰매 종목이다.

13일 겨울 서지훈련을 마친 봅슬레이 대표팀이 올해 소치올림픽에서 사상 첫 남자 4인승 2팀과 2인승 2팀, 여자 2인승 1팀 등 전 종목 출전을 확정 짓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봅슬레이에서는 남자 4인승과 2인승, 여자 2인승까지 전 종목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이변이 없는 한 봅슬레이에서만 11명의 선수가 소치 땅을 밟는다. 루지에서도 사상 최초로 남녀 싱글과 남자 2인승에서 모두 출전권을 획득하고 4명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다. 남자 스켈레톤에서는 윤성빈(한국체대)이 출전권을 확보한 가운데 이한신(전북연맹)이 두 번째 출전권을 두고 마지막 경쟁을 벌이고 있다. 스켈레톤에서 2장의 출전권을 획득한다면 썰매 종목에서만 17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

스키 종목 역시 밴쿠버 때보다 많은 선수를 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3일까지 경기 결과로 대한스키협회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결과로는 모두 15명 정도가 출전권을 따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동현(경기도체육회)이 앞장선 알파인 스키에서 5명, 최재우(한국체대)가 기대주로 꼽히는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4명의 출전이 기대된다. 이채원이 건재한 크로스컨트리와 김호준(CJ제일제당)이 활약하는 스노보드, 영화 '국가대표'로 익숙한 스키점프에서 각각 2명씩 출전할 것으로 대한스키협회는 내다보고 있다.

밴쿠버 대회까지 한 번도 올림픽에 나서본 일이 없는 한국 컬링도 이번 대회에 여자 대표팀 5명이 출전권을 따냈다.

/정성훈기자 ysw@metroseoul.co.kr

2년만에 골프채 잡은 안시현

여자 프로골퍼 안시현(30·골든블루·사진)이 돌아왔다.

안시현은 1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골든블루와 계약식을 갖고 2년 만에 다시 골프채를 잡았다.

2011년 결혼과 임신으로 2년이 넘는 공백기를 가진 그는 지난해 11월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추천선수로 복귀전을 치른 뒤 시드전을 통해 2014년 KLPGA 풀시드를 확보했다. '워킹맘'으로 힘든 투어 생활이 예고됐지만 안시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생겼다. 다시 은퇴하게 된다면 후회가 없었으면 한다"며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자 보물인 딸을 보며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다짐했다.

/정성훈기자

박정권 2억3500만원 재계약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박정권(33·사진)이 13일 지난해 연봉 2억500만원보다 3000만원 오른 2억3500만원에 재계약했다. 박정권은 지난해 110경기에 출장해 타율 0.292, 18홈런 70타점을 기록했다.

SK는 이날 103경기에서 타율 0.263, 8홈런 36타점을 올린 외야수 박재상과 지난해 연봉 1억4000만원보다 2000만원 오른 1억6000만원에 계약을 마무리했고, 재활 중인 우완투수 엄정욱과는 지난해 1억원에서 3000만원 깎인 7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정성훈기자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투수 윤석민 메이저리그행 변수

투수 윤석민이 아직까지 메이저리그(ML) 진출 구단을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로서 드러난 사실은 윤석민의 ML행 의지가 강하고 여전히 몇몇 구단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 1월 말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윤석민의 입단을 기다려온 팬들의 마음도 급해졌다.

현재 미국 언론의 관심은 다나카 마사히로에게 쏠려있다. 다나카는 10개 구단과 면담을 갖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다나카의 행보에 팀의 마운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ML 구단들은 다나카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에 세일즈가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민은 한국 시간으로 15일께 미국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그렇다면 에이전트인 보라스 사단이 구체적인 안까지 준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윤석민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민은 ML행과 관련해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선발투수 보장, 두 번째는 몸값 보장이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ML행을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자존심에 걸맞는 대우를 받겠다는 의지다.

특히 선발보장은 몸 상태와 연결돼 있다. KIA 타이거즈에서 9년 동안 선발·중간·마무리로 들쭉날쭉 등판했다. 어깨 부상 전력과 어깨 상태는 투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휴식이 필요하다. 선발투수를 보장받는다면 적절하게 조절하며 풀타임에 도전할 수 있다.

문제는 ML 구단이 중간투수와 마이너리그 계약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윤석민에게는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유턴설은 현실화되고 국내 구단 간의 치열한 영입 경쟁이 벌어진다. 윤석민이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류현진에 이어 제2호 메이저리그 직수출 투수가 나올 것인지 기다려보자.

/OSEN 야구전문기자

프로농구 전적 13일

동부	20	7	12	19	58
신한은행	13	13	20	10	56